

AUTHOR 김재성

TITLE 생애: 칼빈의 전설?
그의 추적자들과 연구과제

IN 최근의 칼빈연구
(March,2001):9-30

제 1장

생애: 칼빈의 전설? 그의 추적자들과 연구과제

김재성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조직신학

1. 시작하는 말

여러분이 만일 칼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매우 분별력 있는 독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칼빈의 생애를 그의 역사적 공간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전기작가들, 즉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먼저 검토해보려는 나의 제안에 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려는 여러 칼빈 추적자들의 연구 업적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곤혹 속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귀기울여줄 것으로 믿는 바이다.

제네바에는 칼빈의 원고들을 보관하는 고문서 도서관이 있고, 스트拉斯부르 대학교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엔 칼빈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에 따로 구비된 칼빈센터가 있다. 칼빈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기록들이 지난 수백년 동안 수집되어 왔고, 정리 보존 관리되고 있음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왜곡된 수많은 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전설로 흘러내려오고 있다.¹⁾ 그중에서도 가장

1) Basil Hall, "The Calvin Legend," in *John Calvin: A Collection of Essays*, ed. G. E. Duffield(Grand Rapids: Erdmans, 1966), 1-18. 칼빈 연구의 오해들과 잘못

대표적인 것은 칼빈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호령하던 ‘신정정치의 독재자’라는, 가당치도 않은 전설이다. 요즘에는, 칼빈의 시대에 제네바 시가 처해 있던 사회 상황에 대한 연구서들이 속속 출간되어서 이런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전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입증해주고 있다.²⁾ 더구나 정치학 관련 분야의 연구서들이 많이 출간되어 나음으로써 칼빈의 면모 가운데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온 독재자라는 누명을 다소라도 벗을 수 있게 되었다.³⁾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결국 그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그의 생애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전설’ 속에 가공된 인물로 상정돼버리기 일쑤이다. 따라서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뒤엉켜서 형성되어간 그의 일생을 먼저 명확한 사료에

된 제시들을 격렬하게 논의한 이 논문은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한다. 특히 칼 바르트마저도 자신의 ‘초월주의신학방법’을 거부한 에밀 브루너의 ‘자연신학’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로 칼빈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임을 통렬히 비판한다. 칼빈은 16세기의 사람이지, 바르트와 같은 20세기 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2) Robert M. Kingdon, “The Control of Morals in Calvin’s Geneva,”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ed. Laurence P. Buck and Jonathan W. Zophy(Columbus: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2), 3–16; idem,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1971):50–69. E.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New York: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Jeanni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Selinsgrove, PA:Susquenana University Press, 1988); William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Allison Park, PA:Pickwick Publications, 1983).

3) W. Fred Graham, “Calvin and the Political Order:An Analysis of the Three Explanatory Studies,”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V. Schnucker(Kirksville, MS: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Ralph C. Hancock, *Calvi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Ithaca: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의거하여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체계적인 금자탑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영향을 준 주변의 도시와 사람들과 만나서 형성된 그의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넓게는 16세기의 시대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하고, 프랑스의 박해가 있게 된 정치와 종교, 그리고 종교 때문에 겪게 된 난민의 생활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칼빈이 가진 신앙과 성격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2. 칼빈 연구의 몇 가지 경향

세계 학계가 지난 20세기에 칼빈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해석을 쏟아놓게 된 것은 ‘네오 칼빈주의’(neo-Calvinism)의 영향이자,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 칼 바르트가 주도한 변증법적 신학의 자국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앞선 세기에 비한다면, 20세기는 세계 도처에서 폭발적인 칼빈 연구 업적들이 쏟아져나왔다.⁴⁾

4) 칼빈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를 기준해본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ohn T. McNeill, “Fifty Years of Calvin Study,” in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 Y.:Schoken Books, 1969); Nauta, “Stand der Calvinforschung,” *Calvinus Ecclesia Doctor*, ed. Wilhelm H. Neuser(Kampen:Kok, 1978); Wilhelm H. Neuser, “Calvin Studies:A Review, The Work of the Calvin Congress and Their Future Tasks and Goals,” in *Calvin Studies V*, ed. John H. Leith(Davidson:Davidson College, 1990), 21–27; Richard C.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d. Wilhelm H. Neuser(Grand Rapids:Eerdmans, 1994), 91–112. 리처드 캠블(Dr. Richard C. Gamble)이 발표한 논문 “지난 10년 간의 칼빈 연구”를 보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연구 성취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계 내에서 그의 이름이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 이자 정통신학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계 내에서 칼빈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국에서 필자는 영문으로 쓴 칼빈의 전기를 처음 접하고, 한 신학교에서 신학영어 원서 강독시간에 『제네바의 그 사람』(The Man of Geneva)을 교재로 택하였다.⁵⁾ 이 책은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해서 칼빈의 일생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의 책이었지만, 내게는 칼빈에 대해 즐겁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지금까지 한국 교계에 나와 있는 칼빈에 대한 충체적인 전기 가운데서, 1975년 영국의 파커 박사의 책을 번역한 것이 가장 널리 애독되어 왔다.⁶⁾ 이 책에서는 신학자로서의 칼빈, 혹은 설교자로서의 공적인 모습이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탁월한 라틴 어 능력을 동원해 제1차 자료에 철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저술이다. 이 책 외에도 설교, 『기독교강요』 요약, 성서해석 등 칼빈을 연구하는데 일평생을 바친 파커 교수가 남긴 지대한 학문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파커의 전기가 지난 약점들이 지난 15년 간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파커는 자기보다 앞선 세대에 널리 애독된 윌리스 톤 워커의 전기를 능가하고자, 이미 인용된 글이나 중요시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생략하였다.⁷⁾ 따라서 지금 내가 워커의 칼빈 전기를 읽을 때에 느끼는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다. 칼빈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매우 딱딱한 전기가 되고 말았다.

역사적인 연구에 심리학적인 방법이 도입된 것은 프로이트의 영향 때문이었다.⁸⁾ 최근에 윌리엄 바우스마 교수가 쓴 칼빈 전기, 『요한 칼빈: 한 16세기의 초상화』가 출간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⁹⁾ 그 동안 써놓은 일련의 논문을 모아놓은 이 책은 매우 불안정한 방법론을 적용한 전기로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어찌면 칼빈 자신보다도 해석자나 역사가 혹은 전기작가가 더 칼빈을 깊이 아는 듯이 심리파악을 시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¹⁰⁾ 바우스마 교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문가로서 칼빈의 이미지를 매우 색다른 모습으로 제시하였는 바, 휴머니즘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입어서 일생 동안 그 흔적이 있으며, 동시에 두려움, 불안, 긴장된 심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칼빈의 마음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심리분석적인 역사적 인물 묘사는 그 방법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¹¹⁾

8) Oskar Pfister, *Calvins Einreisen in die Hexer und Hexenprozesse von Peney 1545 nach seiner Bedeutung für Geschichte und Gegenwart: Ein kritischer Beitrag zur Charakteristik Calvins und zur gegenwärtigen Calvin-Renaissance*(Zürich:1947). 취리히의 목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저자는 칼빈의 심리적인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그의 신학마저 재평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칼빈의 인격 속에는 사랑이란 전혀 없고, 불순한 고뇌에서 빚어진 잔인성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학대자' (a sadist)라고 비난하였다. 이 책에 대해, 두 교수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Fritz Büsser, *Theologische Zeitschrift*(Basel, 1948), 130–113; Ernst Pfisterer, *Calvins Wirken in Genf* (Neukirchen Kreis Moers:1957), 143–150.

9)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0) I. John Hesselink, "Reactions to Bouwsma's Portrait of 'John Calvin,'"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d. Wilhelm H. Neuser(Grand Rapids :Eerdmans, 1994), 209–213.

11) 칼빈에 대해 연구의 각도를 심리상태 혹은 심리묘사에 두는 시도는 이미 몇 사람의 학자들이 시행한 바 있었다. Suzanne Selinger, *Calvin against Himself: An Inquiry in Intellectual History*(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David E. Demson, "The Image of Calvin in Recent Research,"

5) Elsie M. Johnson, *Man of Geneva: The Story of John Calvin*(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6) T. H. L. Parker, *John Calvin*(Batavia, Ill.:Lion Publishing Cor., 1975).

7)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Y:Schocken Books, 1906). 세계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교과서 를 저술한 워커 교수는, 칼빈 전기를 상세히 저술하여 한 세기 전에 명성이 매우 높았던 프랑스의 Doumergue를 크게 존중하여 미묘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해결하고 있다.

칼빈은 동료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산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글에는 많은 두려움과 초조한 정서가 배어나온다.¹²⁾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칼빈의 생애에서 과연 그의 경건이나 기도

in In Honor of John Calvin, 1509–64, ed. E. J. Furcha, Faculty of Religious Studies, ARC Supplement no. 3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그러나 바우스마 교수의 연구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칼빈이 불안한 심정과 불안한 믿음을 일생 동안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았던가? 과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Brian G. Armstrong은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바우스마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If Bouwsma has discovered two Calvins, the reader also finds many Bouwsmas: The psychohistorian who believes he can get inside Calvin’s mind; the iconoclast who gleefully destroys all theological images erected of Calvin.” *in Church History* 58.1 (March, 1989). Heiko A. Obermann 역시 이런 불안심리는 아무도 그 깊이와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In assessing Bouwsma’s complex argument, one must first of all grant that no Calvin scholar before him has uncovered so convincingly the personal fear and trembling in which Calvin wrote and lived. On the other hand, no effort is made to delineate the general anxiety of the times, both of the later Middle Ages and of the sixteenth century, so that we cannot know to what extent Calvin speaks from his own experience or to the condition of his times.” *in Times Literary Supplement, Religion* (August 19–25, 1988).

12) 칼빈은 리옹에서 갑우에 갇혀 있으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순교 직전의 두 성도들에게 애절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따라서 그의 편지에도 이런 안타까움과 불안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Letter to Macarius, May of 1558, Calvin Opera 17:91*, “My dear and beloved brother, if, free from fear and anxiety, I should animate you and your brethren in office to endure the strife which awaits you, my language would rightly be considered cold, and even disagreeable. Distressed, however, as I am on account of your danger, and trembling as I do while exhorting you to perseverance and trust, this letter, which is a living image of my heart, and shows all its inward emotions, will speak to you no less clearly than I could myself were I present, and a partaker in your troubles. And certainly, if the

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칼빈의 사상이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윗의 시편에서처럼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를 제쳐두고 도리어 두 개의 칼빈이라는 미로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칼빈이 신학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다루어질 때도 과연 이런 불안한 심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궁극적 통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근원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3. 칼빈에 대한 고정관념?

따라서 최근의 칼빈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에 칼빈의 세계와 그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출판된 연구 업적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고정관념(stereotype)이 수정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파커가 쓴 칼빈 전기를 포함해서 수십여 권의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선입관념이 드러난다.¹³⁾

첫째로, 존 칼빈이 탁월한 신학자요, 최근의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성서해석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를 단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학자’라는 개념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의 체계를 세운 신학자라고 생각하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21세기 초엽, ‘신학자’라는 칭호는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세상의 일에는 초연하고(?) 그저 지적인 탐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세계와는 다소 격리되고 제한적으로 교회 내에서만 영향을 남김으로써 사회의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책과 씨름하고 이론에 치우쳐 살다 가는

worst should happen, it would be my wish to be united with you in death rather than to survive you.”

13)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Basil Blackwell, 1990), xi–xv.

처지이다. 칼빈을 16세기 신학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 우리 세대의 신학자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임을 놓치고 만다.

칼빈은 신학이란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해야 할 어떤 것인지, 머리로 해결해야 할 지식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신학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여타의 학문처럼 단지 암기력이나 지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혼을 송두리째 집중할 때 이해되는 것이요,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좌소와 거주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다.¹⁴⁾

칼빈의 사상, 신념, 능력, 그리고 영향력 등은 단지 그를 상아탑에 갇혀 원고봉치나 혹은 실험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이론가이자 신학자라는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야를 망라해서 유럽 역사에 한 새로운 실체를 남긴 능동적인 사회의 지도자였다. 언어에 남다른 학식을 갖추고, 사회의 조직과 기관에 통찰력을 제시하며, 도시의 광범위한 필요와 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한 유럽 역사의 주역으로서 그의 생애를 조망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을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로만 보려는 선입관이 고정관념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의 사상의 근원과 영향력이 광범위함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에 묻혀 지낸 이론가나 사색가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 있는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들보다도 더 설득력 있으며 행동력 있는 지성의 힘을 가지고, 급변하는 전환기의 한 시대와 사회를 지도해나간 역동적이며

14) *Inst.*, III.vi.4: "It is a doctrine not of the tongue but of the life and is not apprehended merely by the intellect and memory, like other sciences, but is received only when it possesses the whole soul, and finds its seat and habitation in the innermost recesses of the heart." 칼빈의 신학하는 태도와 방법은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었다.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141-151.

실천적인 지도자였다.

독일의 종교사회학자인 트뢸취(Ernst Troeltsch)는 기독교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두 시대가 있는데,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을 토대로 한 중세 시대요, 다른 하나는 칼빈주의를 통한 근세 초기의 시대라고 지적하였다. 바로 칼빈의 지적인 능력이 기독교가 사회와 조화를 이뤄 적응하기보다는 새롭게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근대사에 보기 드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칼빈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기독교가 추상적인 이론화에 몰두하여 신학논쟁이나 일삼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조금도 벗어날 줄 모르는 폐쇄적인 아집이 아니라, 사회적인·정치적인·경제적인 실체 속에서 폭넓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주의가 분명히 성서라는 종교적인 신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순전히 종교운동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래 종교, 특히 기독교는 서구 유럽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원리이며,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 미친 영향은 오늘날에도 무의식 속에서 광범위하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준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요한 칼빈은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만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고, 사회의 문제들 속에서 교회와 함께 생생하게 활동하며 살다 갔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그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16세기 유럽 역사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낸 그의 폭넓은 활동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된다.

두 번째로, 칼빈을 생각할 때에 제네바의 독재자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우리가 '칼빈의 제네바'라는 말을 곤잘하는데, 이런 간단한 생각 속에는 분명히 제네바의 명성과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자를 칭송하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의 주권을 제한한 독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 도시의 신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그는 알렉산더나 한니발이 아니었

다. 만일 칼빈이 제네바를 바꾸어놓았다면, 제네바 또한 칼빈을 바꾸어놓았다. 칼빈이 성서적인 원리를 동원해서 이 자치도시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도시를 지도해나갈 때에, 그의 생각의 핵심 부분에는 당대의 제네바의 정치원리, 시행규칙, 제반 상황들이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필자는 최근에 한국어로 소개된 스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의 『폭력에 대항한 양심 : 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를 읽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츠바이크는 자신의 칼빈 전기에서 쇠로 된 채찍을 휘두르면서 비정의 도시를 다스린 제네바의 독재자로 칼빈을 묘사하였다. (*un homme sans coeur et sans entrailles.*) 칼빈은 성서의 무오설, 특히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에게 제네바에서 설교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난 뒤부터 카스텔리오는 칼빈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놓았다. 칼빈은 광신적인 주지주의자로 묘사되었고, 카스텔리오는 코끼리에 맞서서 싸우는 양심적인 모기 한 마리라고 변호하였다.

약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인간의 동정심에 의해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신앙보다 느슨한 휴머니즘의 반동에 의해서, 칼빈은 광기에 휩싸여 있던 모질고 혹독한 살인마요, 도무지 인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금욕주의자로 채색시켜버린 것이다.

깡마르고 기다란 타원형 얼굴은 … 흡혈귀처럼 뺨에 있는 핏기를 다 뺏아먹은 듯, 두 뺨은 주름지고 병들고 창백하다. 이 두 뺨이 격렬한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데에는 몇 초도 안 걸릴 것이다. 길게 훌날리는 예언자 수염이 이 성마르고 노란 얼굴에 남자다운 힘의 모습을 주려 하지만 헛일이다. 이 수염도 생기나 풍만감은 없다 …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다가 문득 이런 그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처럼 끔찍한 모습이다. 바싹 야위고 살집도 색깔도 없는 손, 차갑고 빼마디가 불거져 나온 손, 독

수리 발톱처럼 한 번 거머쥔 것은 강하고 욕심스러운 빼마디로 꽉 움켜쥘 것 같은 손 … 그것은 분노한 사람의 손이며, 그 손만 보고도 칼빈이 일생 동안 지녔던 지배하고 감독하는 위대하고 잔인한 힘을 짐작하게 된다.¹⁵⁾

이것은 칼빈이 로마 가톨릭 측에서 출판된 연구서보다도, 개신교 내에서 그가 더욱 공정한 대접을 받기가 더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이것은 차라리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처럼 느껴진다. 츠바이크는 히틀러 통치하에서 가장 극심하게 저항하던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으므로, 외국인에게 독한 체형을 가했다는 칼빈의 생애에 대해 남달리 증오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짓밟고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버린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서 발견하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칼빈에게 대입시킨 것이며, 근거 없는 황당한 상상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는 실제로 우울증과 망명생활로 전전하는 동안에 몇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칼빈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루터를 비난하고자 에라스무스를 높이 기리는 책을 쓴 바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1942년 부인과 함께 자살하고 말았다. 인생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지 못한 츠바이크는 불행한 시대에 대한 울분으로 칼빈과 루터에게 터무니없는 악평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아무런 역사적 고증도 없이, 후대 역사가의 인용과 확대 재생산에 의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츠바이크가 죽은 후, 장 쇼레(Jean Schorer)는 츠바이크의 책에서 이곳 저곳을 발췌하여, 잘못된 인용을 그대로 사실화해 다시 한번 ‘독재자 칼

15)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 (Vienna: 1936), 안인희 옮김, 『폭력에 대항한 양심 : 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서울: 자작나무, 1998), 61. 이 책은 1946년에 프랑스 어로 출판되었으며, Roland de Pury는 칼빈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이 책에 대해 지금까지 출판된 역사서 가운데서 그 어떤 책보다도 철저히 왜곡된 문서라고 혹평하였다. (1947년 4월 12일자, Réforme를 볼 것)

'빈'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였다.¹⁶⁾ 그러나 그 어디에도 칼빈이 그토록 냉혹한 독재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빙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네바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죽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체벌을 받았으나, 이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긴장과 대립에서 나온 결과들이요, 칼빈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니라, 16세기라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행한 가공할 종교재판과 잔인한 박해와 경찰권과 군사력을 동원한 체형들은 거의 유럽 전역을 휩싸고 있었기에 당시의 패러다임 속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체벌의 원흉으로 칼빈을 지목하는 것은 당시 제네바의 권력구조나 결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무지에 기초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가 목격하듯이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잔인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칼빈의 결정적인 독재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어왔다. 1553년 10월 27일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가 화형에 처해졌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불경죄를 범했고, 특히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만 출생하였으므로 성적으로 결함이 있었으리라는 헛소리도 첨가했다. 한때 의사로서 활약하던 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만으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비엔나에서 화형을 선고받고 도망하여온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서 죽은 일을 놓고서 칼빈의 잘못으로 돌리는 역

사적 평가는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¹⁷⁾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르베투스를 예로 들어서 '칼빈의 잔인성'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일까? 순수한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잉글랜드에서는 메리 여왕의 박해 시대에 그려했으며, 그리고 부도덕한 프랑스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행된 수많은 화형과 처형들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세르베투스의 경우를 볼 때에, 칼빈은 화형만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고, 그가 처형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17) 세르베투스의 사건을 칼빈이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20세기에 가장 정확한 칼빈 학자로 손꼽히는 Ronald S. Wallace는 당시 칼빈이나 베자의 결정은 거의 모든 개혁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실임을 지적한다.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1988), 77.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가 짹터오면서 이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03년 10월 27일, 개혁교회는 세르베투스 사건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르베투스에게 속죄하는 회례의 비문을 화형의 형틀이 있던 곳에 세웠다. 위대한 칼빈 학자였던 두메르그가 이런 일을 주도했고, 다음의 기념비문을 썼다. "Respectful and grateful sons of Calvin, our great Reformer, but condemning an error which belonged to his century and firm believers in freedom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e true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and the Gospel, we have raised this expiatory monument." 1901년에서 1959년 사이에 나온 연구들은 W. Niesel이 작성한 *Calvin-Bibliographie*(München, 1961)에 실려 있다. Bonnet이나 Doumergue 같은 학자들은 이 사건은 칼빈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그러한 종교분쟁의 분위기가 낳은 그 시대의 실수라고 평가하였다. 이 당시 결정과정을 매우 소상하게 들었던 벨랑히톤이 이를 위대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였다. (Letter of Melanchton to Calvin, October 14, 1554) 세르베투스 사건을 그 어느 책보다도 매우 상세히 다루면서, 스틱켈버거는 당시의 사건을 오늘의 역사가 생각하듯이 할 수 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다. Emmanuel Stickelberger, *Calvin, A Life*, tr. David Georg Gelzer(Richmond: John Knox Press, 1954), 132.

16) Jean Schorer, *Jean Calvin et sa dictature d'après des historiens anciens et modernes*(Geneva: 1948). 그러나 츠바이크와 쉬코레의 혹평에 대해 전혀 지성적인 순수성이 결여된 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Henri Delarue and Paul F. Geisendorf, *Calvin, Stefan Zwig et M. Jean Schorer*(Geneva: 1949)를 볼 것.

끓고 고통을 느꼈으며, 이런 잔인한 살인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몸부림친 기록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세기의 종교 대립의 시대를 살던 칼빈에게 종교적인 관용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오직 그는 신앙의 파괴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참지 못했을 뿐이며, 교회의 판정은 언제나 신중하고 관용적이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점점 잔인해지는데 유순한 정신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는 죄인을 존중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크게 조심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여러분들의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형제로 존중하라고 사도는 말씀하신다.¹⁸⁾

따라서 칼빈을 마치 자유를 말살하고, 견실한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독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유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길료된 위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는 사실을 놓고 무엇이라고 변명하려는가?

칼빈을 '제네바의 독재자'로 몰아세운 19세기와 20세기의 저술가들은 상당수가 전설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다. 정확한 역사적 근거도 없이, 그저 흘러오는 전설의 이야기를 따라서, 완전히 조작된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했다. 벌자크의 『평전』(Honoré de Balzac, *La Comédie humaine*)에 보면, 1541년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오자마자, "추방을 시작했고, 자신의 종교적인 테러를 조직하였다"고 늘어놓고 있다. 그는 시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아마도 자신이 극도로 미워하던 로베스피에로와 칼빈을 혼동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을 제압할 목적으로 칼빈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는 그 어떤 형태라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칼빈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경찰력이나, 공공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공포를 조성하거나 압박을 가

18) *Inst.*, IV. xii.1.

한 적이 전혀 없다. 칼빈이 스트拉斯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이후로 간여한 처형은 오직 한 사건, 세르베투스의 일뿐이었다. 칼빈은 혼자서 명령을 내리거나, 호통을 치거나, 조사하거나, 심문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적이 결코 없었다.

칼빈의 명성에 흡집을 내려는 의도에서, 최근 알더스 혁슬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한 말, "칼빈이 제네바에서 위대한 신정 통치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놓은 재판문서나, 교회문서의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말한 것이다.¹⁹⁾ 더구나 부모 폭행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형을 내린다는 형벌조항이나 민법조항, 또는 처벌조항 자체가 당시 제네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중에는 제네바 당회록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칼빈이 시도하던 일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 중인데, 칼빈이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던 영혼의 목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최근 논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위스콘신 대학교의 로버트 킹던 교수는 힘주어 주장한다.

칼빈은 목회자로서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친척들과, 이웃들과, 기독교인들의 전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 Aldous Huxley, *Proper Studies*(London:1949), 287. "during the great Calvin's theocratic rule of Geneva a child was publicly decapitated for having ventured to strike its parents." A.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106. 맥그래스 교수는 제네바 고문서 도서관을 아무리 조사해도 이런 사건 기록은 없었다고 논박하면서,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 해도, 칼빈의 역할이란 가끔 자신의 전공과목인 법조문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제네바의 시민법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시당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것 이었다.

… 필자는 제네바 당회록이 좀더 자세하게, 칼빈의 일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면모를 알려주는 데 좀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²⁰⁾

이미 스토퍼르 교수가 이런 엄청난 음모에 대항하여, 『칼빈의 인간성』을 써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칼빈에 대한 역사적 오해가 심각하다는 사정을 문헌적으로 밝히고 있다.²¹⁾ 일부 악감을 가진 칼빈의 추적자들, 당대에 함께 살던 제롬 볼섹을 비롯하여, 프랑스 가톨릭 오딘(J. M. Audin), 캄프슐트(F. W. Kampschulte)에 의해서 엄청나게 폄하되고 왜곡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²²⁾

20) Robert M. Kingdon, "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vol. xxxvi(Kirksville, MS: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97), 21-34.

21) Richard Stauffer, *The Humanness of John Calvin*, tr. George Shriver (Nashville: Abingdon, 1964; 1971), 20-31.

22) 스토퍼르 교수가 칼빈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에 맥네일 교수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떠돌아다니는 근거없는 악평 때문이었다. 한때 개신교 전영에 있다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간 제롬 볼섹(Jerome Hermes Bolsec)은 예정론을 거부하여 칼빈과 격렬한 논쟁을 하였으나, 그의 입장은 반영하여 나온 저술의 경향은 칼빈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워질 뿐이었다. 1562년에 처음으로 나온 Francois Baudoin이 쓴 두 권의 저서, *Ad leges de famosis libellis et de calumniatoribus, Commentarius*와 *Responsio altera ad Joan. Calvinum*에서 사악하고, 잔인하고, 승리에만 몰입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았다. F. W. Kampschulte, *Johannes Calvin: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Leipzig: vol. I, 1869; vol. II, 1899). 독일 본 대학의 교수이던 저자는 로마 가톨릭으로서 칼빈의 친면목을 그려내는데 실패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까지 프랑스 가톨릭에서 교파서처럼 권위를 인정한 저서는 J. M. Audin, *Histoire de la vie, des ouvrages et des doctrines de Calvin*, 2 vols.(Paris, 1841)이었으나, 칼빈을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

마치 호메이니가 회교원리로 이란을 다스렸듯이, 칼빈이 꾀 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무서운 독재자로 제네바를 신정통치하였다고 막연하게 비난해버리는 경향마저 있다. 어떤 역사 교수는 칼빈주의를 오해하여 무자비한 도덕적 엄격주의요, 교회가 앞장서서 징벌과 징책을 집행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면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훈육과 징계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박해의 칼을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칼빈과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맡은 일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동시에 신화처럼 확인할 수 없는 말들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 교회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같이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의 척도를 가지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근거 없이 전해오는 소문에 의존해서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칼빈도 시대의 아들이요, 교회와 역사의 산물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었고, 더구나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날 천재나 신동이 아니었다. 당대 휴머니즘의 영향하에서 고전을 공부하고, 성서와 초대 교부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감을 발견한 뒤, 그 세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제네바 시민을 향해 설교자로서 호소하고, 교회 당회와 시의회, 교육기관과 자선사업을 꾸려나간 경건한 실천가였다. 많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일생토록 고생하면서도 많은 저술과 편지를 남긴 문필가였고, 아내의 죽음을 놓고 가슴 아파한 다정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셋째로, 칼빈이 지적인 탐구와 과학의 발전을 적대시한다는 고정관념이다. 과거 수백년 동안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인 태양계의 이론에 대한 칼빈의 태도가 의문시되어 왔었다. 앤드루 딕슨 화이트는 『신학과 과학이 싸워온 전쟁사』(*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너, 너무나 이기주의자였고, 끝없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관용이 없는 사람이어서 모두들 두려워하여 피해버렸다고 쓰고 있다.

Theology, 1896)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든 무리들을 저주한다고 했다. 그는 시편 93편의 첫 절을 항상 근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뜻을 박았다. 누가 감히 성령의 권위보다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높이 두려고 시도할 것인가?²³⁾

이 주장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반복되었다. 베틀란드 러셀(Bertrand Russell)마저도 그의 서양철학사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논문이나 주석이나 그의 글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창세기 주석에도 물론 없다. 맥그라트 교수에 의하면, 19세기에 켄터베리 대학의 교무처장이던 파라(Frederik William Farrar, 1831–1903)가 전혀 신빙성이 없이 쓴 글에 보면 위와 같은 오해의 근거가 근본 자료로 목격된다고 한다. 현대의 신학자나 기독교계에 이처럼 허구적인 글이 압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식인들의 글이나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서 오는 무지와 수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칼빈 자신의 글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로 믿어버리는 선입견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오늘날 소위 신학대학원 과정과 같은 정규 신학수업을 받은 바 없으며, 목사안수마저도 언제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²⁴⁾ 그는 일반

23) *Ibid.*, xiv.

24)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 (New York: Schocken Books, 1906, rep. ed. 1969), 123. “Calvin had never been ordained in the Roman Church; he was never set apart for the ministry by the imposition of Protestant hands. He regarded his postoral labours as a task to which he was called of God – a call witnessed by his own clear consciousness of the divine guidance in appointing him his course in life.”

철학과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법학을 전공함으로써 학업을 마쳤다. 신학과 성서주석은 일평생에 걸친 그의 연구의 소산이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칼빈에 대한 개념들 가운데는, 마치 신화처럼 적당히 꾸며지고 조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꼭해되고 있음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역사의 슬픈 일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오늘날 칼빈주의가 자연과학의 ‘세 지식’을 거부하고 격대시하며, 칼빈의 글과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4. 남은 연구과제들

이미 기억의 저편 너머에 있는, 그리고 우리 극동 아시아의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16세기, 제네바 개혁의 지도자,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연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역사의 인물이나 사상에 대해 바른 연구는 곧바로 자신과 오늘의 역사에 대한 바른 분석과 이해를 돋기 때문이다.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자기 모습을 바르게 조망해볼 수 있는 교훈을 주고, 비판의 관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칭송이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선 시대에는 훌륭한 성취와 업적도 이루하였지만, 그만큼 정비례하는 오류와 오점도 남겨놓고 갔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필요한 것이요, 그만큼 오늘의 지혜를 갖도록 우리들의 안목을 변화시켜준다. 이것이 각자 개인에게 남겨진 과제 중 으뜸이자,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역사의 오도를 바로잡아야 하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해 역사적인 오해가 쌓여오고 있듯이, 역시 이 시대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도 커다란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일찍이 사회현상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논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사회 과학이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느냐의 여부였는데,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완전한 객관성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한 인물 칼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구나 칼빈이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저술에서는 대단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당당히 역설들(paradoxes)을 접하게 된다. 칼빈 연구에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뜬소문을 따라다니는 격이 되고 만다.

한국의 칼빈 연구는 그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찬양하거나 홍보하려는 편견으로 집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에야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칼빈이 남긴 유산의 본질과 내용을 바르게 소개하여 이 위대한 거인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서 서구 유럽에 듬뿍 담겨 있는 그의 영향과 그의 사상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지침을 찾으려 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모든 사상과 모든 인물은 동시대의 제한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엄숙한 경고 앞에서, 그의 생애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 탁월한 시대의 지성인이다. 혼신된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 있는 동안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창출하는 데 역동적으로 몸을 던졌다. 물론 성서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학적인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인 지성인이었다. 유럽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가장 앞선 지식을 스스로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의 원천은 성서였다. 그는 언제나 성서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였다.

프랑수와 방델은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그러한 혼적을 남길 수

있었고, 또한 그 때를 넘어서서까지도 좀처럼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까닭은 그가 강력하게 조직된 교회의 창설자였고, 동시에 하나의 체계화된 교리의 저자였기 때문에 지적인 엘리트와 많은 신자들까지도 그것의 주변에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의 배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칼빈은 한 사람의 사상가를 훨씬 뛰어 넘는, 인류의 지도자(a leader of men)였다.”고 결론지었다.²⁵⁾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경건한 신앙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단점과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취한 업적을 가능하게 뒷받침해준 그의 지도력의 근본을 배우고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인 것이다.

칼빈은 영혼의 목자로서, 제도적으로 개혁교회를 정착시키려 노력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저술 작업과 수업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던 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형제들의 보호자로서, 구제에 앞장선 자선사업가이자, 기독교 공동체 건설의 이상을 지닌 동정심과 인정을 지녔던 한 인간으로 살아갔을 뿐이다.

역사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타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편견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시대를 이해하고,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 앞에서 진실한 태도이며, 후세를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과제로는 오늘의 한국 신학의 정립에 있어서 칼빈처럼 당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서로 돌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의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 헤쳐나가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방법이나 목회기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뇌와 그 해결책이 성서로부터 나와야

25)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옮김,『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서울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438-439.

한다는 점이다. 칼빈의 신학은 수많은 당대의 문제들에 대한 성서적인 해답을 추구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천재의 영감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경건이요, 시대의 요청이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당면 연구과제나 목회과제에 매달리는 나머지 그 뿌리와 근원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교리의 흐름과 교회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 진지하게 기독교의 현재적 접목을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짚은 신학도들과 캠퍼스 선교단체 관계자들도, 칼빈 연구의 성과를 그저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에 관한 무지는 그저 흘러내려오는 전설을 사실로 만들게 하고, 오해와 무지 속에 마음대로 편집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만다.

종교개혁의 신학을 세운 칼빈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금석을 제시하여놓았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해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는다. 더 나아가서 신학을 무시하고, 당장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회방법만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던져버려야 할 껌데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준다. 당대 최고의 학식과 지식에 근거하여, 오직 성서로 돌아가서 현실의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교회의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생애에서 한국교회 문제 해결과 발전 방향에 대한 수많은 시사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서의 사람, 칼빈에 대한 연구과제가 아직도 비성서적인 이방 세계에 접목시켜야 할 연구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제2장 코프 총장 연설문의 저작 문제

황정숙 | 한신대학교 · 교회사

1533년 11월 1일 파리 대학교의 신임 총장 니콜라 코프(Nicolas Cop)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한 교회에서 연설을 했다.¹⁾ 모든 연구자들은 이 연설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데 일치한다. 당시 프랑스의 일반 상황은 총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런 연설을 할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시의 조건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기에 유리했다고 보기도 한다.²⁾ 마르게리트(Marguerite)의 서적 검열 사건은 당시 프랑스 루터파(luthériens)의 처지를 개선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매우 불리했으니, 프랑스와 1세는 마르세유에서 교황과 홍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파리 대학교는 서적 검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학부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총장은 이때 악역을 맡았다. 그러므로 신학부 교수들은 아마도 총장에게 보복할 기회를 잡고자 했던 것 같다.

1) 총장 연설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Marthurins 교회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Pierre Driart, "Chronique parisienne," *Mémoires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Paris* 22/1895, 165. Manrique가 Vives에게 보낸 서신 (1533. 12. 9.), De Vocht, *Monumenta humanistica Louaniensis*, 4, 438 참조. 한편 Driart는 코프가 연설이 아니라 설교를 했다고 말한 반면, Manrique는 그것이 "연설" (concio)이라고 말한다.

2) G. Schurhammer, Franz Xaver, vol. 1, 183 참조.